

2. 공의회 정신의 지속과 공감

1) 교세의 변화

논산본당은 빠른 속도로 교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65년도 대전교구 교세 통계에 따르면 교구 내 25개 본당 가운데, 주교좌 대흥동본당을 제외하고 논산본당이 신자 수 4,044명으로 가장 많았다. 1965년 6월 ‘교세일람’과 1966년 12월에 다시 작성된 ‘교세일람’에도 당시의 상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구분	1~9세	10~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계
1965.6.	1,057	784	1,206	433	225	3,705
1966.12.	913	992	1,431	510	277	4,123

1965년 6월, 논산본당의 총 신자수는 3,705명이고, 이듬해인 1966년 말에는 4,123으로 약 418명이 증가했다. 1958년 대전교구 교세통계에 따르면 연무본당이 분리된 직후 2,712명이던 신자수에 비해 1,4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신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영세 입교자의 증가이다. 1966년 교세일람에 수록된 연도별 영세자는 1963년부터 66년까지 각각 201명, 381명, 308명, 424명이었다. 잠재적 교세 증가 대상인 예비자 역시 대흥동 주교좌를 제외하면 교구 내 본당 가운데에서 가장 많았다.²¹⁴ 한편 연령별 신자 분포는 40대 미만의 신자 비율이 두 해 모두 80%를 상회하고 있고, 냉담자는 65년과 66년에 각각 88명과 108명에 불과해 97%가 넘는 수계율을 보이고 있었다.

2) 교리반의 편성

교리반의 경우, 모든 요일에 강좌가 편성되어 있었다. 신부와 수녀 외에 평신도 교리교사가 교리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평신도 교리교사의 활동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리반 가운데는 기관장 및 유지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반과 초

중고 교사들을 위한 교리반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다른 교리반에 비해 인원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 교리반은 본당과는 별도로 대건학교와 썬밸학교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
1965년
교리반 운영
상황

번호	지도책임자	대상자	인원	요일, 시간
1	이수녀 · 연수녀	국민학교 아동	200	목금토, 16시
2	이수녀	부녀	85	일, 11시
3	손신부	중학교 교사	48	월수, 18시
4	손신부	각 기관장 및 유지	14	화, 20시
5	김석배	일반직 공무원 및 상인	12	금, 20시
6	박한규	일반 남자	8	화금, 20시
7	김종태	부적면 유지	10	수, 19시
8	김종태	중고학생	7	일, 7시30분
			384	

이상의 현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1960년대 중반 논산본당은 기관장과 지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엘리트에 대한 전교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가톨릭 신앙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평신도 교리교사의 활발한 활동은 공의회가 추구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사례라 하겠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전교활동이 입교 영세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교구에서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젊은 신자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앙 활동이 전개된 논산본당은 손 신부를 필두로 하여 교회의 선교 사명과 개혁과 개방이라는 공의회 정신이 선구적으로 구현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
1966년 말
교리반 운영
상황

번호	지도책임자	대상자	인원	요일, 시간
1	손신부	기관장		화, 20시
2	손신부	국교교사		월, 18시
3	유신부	중 · 고교사		월, 18시
4	이수녀	부인A		일, 11시

5	김아가다	부인B		일, 11시
6	김마지아	노인(남)		각미사후
7	김치릴로(석배)	일반상인		금, 20시
8	권바로	중학생신자		일, 9시30분
9	유신부	고교생신자		일, 9시30분
10	서수녀	중고학생예비자		일, 11시
11	백루까	대건학교		금, 4시30분
12	서수녀	센뿔학교		금, 4시30분
13	김알로이시오	미혼여성		목, 19시
14	이수녀 · 연수녀	아동교리		일 · 금 · 토
15	김시릴로(용덕)	노성		일, 10시
16		연산		토, 20시
17		부적		금, 17시
18		성동		월, 19시
19		강산리		화, 19시
20		수랑골		수, 19시
21		해창		목, 19시
22	라야고버	덕지동		수, 20시

3) 공의회 정신의 지속과 공감

공의회에 대한 축복의 표지로 성년이 선포된 가운데, 본당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 교육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본당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던 것이다. 1966년 9월 23일~24일에 실시된 회장단 및 재정위원과 21개 공소회장 피정에서는 ‘교회 내 회장의 임무’에 대해 본당회장의 특별 강의가 실시되는 한편, 전교 현황 보고와 재정에 관한 제반 문제협의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다.²¹⁵ 공의회 정신이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숙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정을 통해 그 향방을 정립시켜 나간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²¹⁶

평신도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역시 공의회로부터 파생된 가르침을 교육

하고 공감하기 위한 기회가 마련되었다. 논산본당은 이미 다양한 연령과 신분을 대상으로 한 교리반이 운영되고 있었고, 평신도 교리교사의 활동도 두드러진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처럼 크게 활성화된 본당의 교리교육은 비단 예비자들뿐만 아니라 신자 재교육과 교리 수준 향상에도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교구에서 실시한 교리경시대회에서 논산본당은 해마다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6년 제1회 대전교구 교리경시대회에서는 논산본당의 참가자 가운데 당시 73세의 최현용 마리아가 대회 최고의 최고령 참가자이자, 가족 3대 함께 응시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²¹⁷ 1967년 10월에 열린 제2회 대회에서는 당진본당과 주교좌 대흥동본당에 이어 논산본당이 단체 3위에 입상하였고, 백남종이 개인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²¹⁸ 제3회 대회가 개최된 1968년에도 본당은 단체 2위와 개인으로는 권길중이 3등을 석권하였다.²¹⁹ 논산본당은 교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리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본당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열의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 구현이라는 과업에 대해 논산본당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친 평신도 중심의 신앙 쇄신 운동은 짧은 시일 안에 결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1969년 부활절을 맞은 세례식에서 104명의 영세자를 낸 논산본당의 신자율이 본당 관내 총인구 대비 15.5%에 달하였다. 당시 논산본당의 신자 총수는 4,909명이었다. 본당은 그동안 남자와 기관장급의 지역 엘리트를 중심으로 전교활동을 벌여왔다. 손신부의 사목 방향은 시대적 요청과 논산의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양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적인 각성을 통해 교세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냉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노력이 가정 교회의 쇄신이었다. 손신부는 1969년 사목 목표를 ‘가족 전교의 해’로 정하고 모든 신심행사를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신앙생활의 내적 강화가 가족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²²⁰

아울러, 본당의 주보인 ‘루르드의 성모’를 통하여 신심을 고취시키기를 희망했던 본당 설립 초창기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계승하였다. 교구 최초의 레지오마리에 도입과 루르드의 성모 동굴을 건립하는 등 성모 신심을 키워왔다. 신자들은 대규모의 성모 성월 행사를 해마다 5월에 성대하게 개최하였다.²²¹ 1973년에 있었던 성모의 밤은

신자 학생과 내빈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황민성 주교가 집전하기도 하였다.²²²

3. 변화 속의 안정

1) 사회의 변화와 본당의 사명

1970년대 들어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 내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962년 3월 10일 교황 요한 23세는 한국 교회에 정식 교계제도 설정한다고 반포하였다.²²³ 이어서 그해 10월 개막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1965년 12월 까지 긴 여정을 거쳐 치러졌다. 공의회 직후 한국 주교회의서 1966년 5월에 발표한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 교회」라는 사목교서에서는 공의회 문헌 학습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각 교구에서는 공의회에서 발표된 각종 문헌에 대한 교육을 교구와 본당의 차원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²²⁴ 대전교구의 경우 정식 교계제도의 정착과 공의회 정신의 실현 외에도 새 교구장의 착좌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방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복잡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교구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수용해 가려는 노력이 선구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공의회 실천의 선구적 교구라는 평가는 논산본당의 위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교회 쇄신의 선봉에 선 논산 본당은 70년대

에도 식을 줄 모르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그동안 체득된 경험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본당에는 1972년 12월 30일 손만재 신부가 예산본당으로 전임되었고, 조치원에서 사목하던 김영곤 필립보 신부가 제11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²²⁵ 김영곤 신부는 1933년 12월 30일 서산 팔봉 출신으로 1961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대천, 금사리, 장항 주임을 역임하고 조치원을 거쳐 논산본당으로 발령을

—
김영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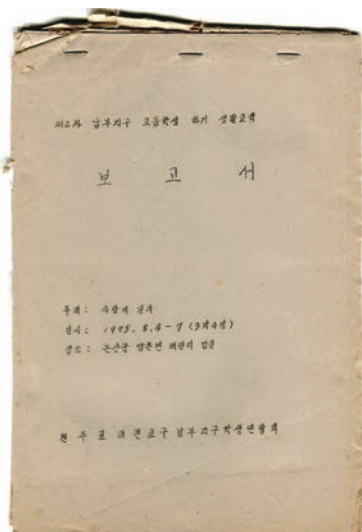
받았다. 김 신부가 부임하기 전 해인 1971년 논산본당은 신자수가 5,275명으로 주교좌를 제외하고 교구에서 교세가 가장 컸다.²²⁶ 5천 명이 넘는 교세를 가진 본당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목할 것이며, 시대적 요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 지역 복음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도 일부 변화가 필요했다. 본당에서 관리를 하던 대건중·고등학교는 1972년 12월 손만재 신부의 이임으로, ‘학교담당’ 사제 혹은 ‘학교법인 이사장 대리’가 별도로 임명되어 관리하도록 하였다.²²⁷ 이 같은 조치는 학교를 분리 운영하여 학교 교육을 전문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운영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의 무시협 진학과 그에 따른 평준화로 인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공립학교의 공납금도 균등하게 책정되면서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때문에 대건학교의 존폐를 두고 교구의 고심이 깊어졌다. 본당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유치원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26년 비인가 소학교에서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기 시작한 이래, 1953년 대건 유치원 시기를 거쳐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이 직영하던 쉐벨유치원이 유일한 유아교육 기관이었다. 그러나 유치원은 운영난으로 인해 1973년 4월 폐원에 이르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의 조기교육 강조와 유치원 공교육의 확대로 전국에 공립학교 부설 유치원이 세워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사회의 변화와 아울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당에서도 변화가 필요했다.

2) 청소년 교육의 선구

「제2차 남부지구 고등학생 하기 생활교육 보고서」(1975)

논산본당은 설립 초기부터 교육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를 세워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과 전교활동을 추진해왔다. 본당 사목구 내에 남자 중·고등학교와 여자 중·고등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은 교구뿐 아니라 전국에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본당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교리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본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수행했으나, 학교의 관리 주체가 교구로 이관되면서 학생 예비자나 신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학교로 넘어갔다. 하지만 남녀 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 영세자와 예비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여전히 본당의 주요

「제2차
남부지구
고등학생
하기 생활교육
보고서」(1975)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때문에 논산본당은 청소년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한 사목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되었고, 각종 프로그램과 학생활동으로 청소년 교육의 모델이 되어 왔다. 1970년대 논산본당은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도하고 있었다. 본당에서 학교를 운영했던 경험과 교사들이 그대로 본당 신자들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용이했다.

1975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열린 「제2차 남부지구 고등학생 하기 생활교육 보고서」에는 교육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²²⁸ 논산군 양촌면 채광리 밤골에서 개최된 여름 캠프에는 ‘사랑의 일치’라는 주제로 남녀 고등학생 86명이 참가하였다. 이 교육 캠프에 참여한 학생 86명 가운데 논산, 강경, 연무 본당 참가자가 72명으로 84%에 육박하였다. 11명의 지도교사는 모두 논산지역에 교적을 두고 있었고, 그 가운데 대건고와 썬밸리고 교사를 포함하여 논산본당으로 볼 수 있는 지도교사가 8명이었다. 특히 지도교사의 요건은 건진성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당해 판공사를 필한 25세 이상의 열심한 신자로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8km 하이킹과 수영 강습, 봉사활동, 신심 강의와 성가 경연 그리고 캠프파이어 등이었다. 젊은이들의 취향을 고려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내적 쇄신과 실천을 위한 소양을 체득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생활교육 캠프에는 교구장주교가 참석하여 직접 미사를 집전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하여 교구의 관심을 드러냈다. 황 주교는 강론에서 ‘날로 침투하는 그릇된 사상에서 비롯



된 불의에 대처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가톨릭 정신으로 무장하자'라고 촉구했다. 여름 캠프가 신앙 쇄신의 계기가 되었다면 체육대회는 친교를 다지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이었다.

1977년 9월 23일 대건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남부 지구장배 학생 체육대회는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논산 본당과 대건·췌뿔학교는 논산 지역의 선교와 학생 신앙 활동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질의 지도자가 양 학교 교사 중에서 선발되었고, 학생 활동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의 상승효과로 많은 신자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논산본당의 청소년 복음화와 신앙교육은 학교 및 신자 교사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앞서 학교에서 운영된 교리반에 본당 신자 교사가 교리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본당의 청소년 교리교사로도 활동하였는가 하면, 청소년 신앙 캠프에서도 대건고와 췌뿔여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도자로 활동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본당으로 자연스럽게 신앙 활동이 이어지도록 교리반을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논산 본당은 지속적으로 학생 신자들을 양성하여 미구에 교회의 중추로 역할 할 수

The image shows two pages of a handwritten Korean book. The left page contains the following text:

한 국 문
 주 소
 서 작
 상 명: <한글>
 주된 물산 년 월 일
 문헌은 문헌가들이 관공에게 일찍이 신성함
 197 년 문 상
 문 헌
 문헌가들이 관공에게 일찍이 신성함
 가 록 사 상

Below the text is a table with 5 columns and 10 rows. The headers are: 국어,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The table is empty.

At the bottom of the left page, it says: 주 1979년 1월

The right page contains the following text:

어린 이 미 사
 (Illustration of a person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sitting at a table with a bowl and a candle.)
 문헌 천주교 회 주원 회로

"나는 권이며 전이며 경입니다. 나를 거서치 함으로써 아무도 이비 저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요한14장6절) 주 의 사 랑 1. 이 카드는 매일 미사 순례와 공경 이니 분별하시 하십시오. 2. 미사에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 카드를 지참 하십시오.	매 일 미 사 순 례 카 드 주 소 _____ 미 _____ 한 명 _____ 성 모 _____ () _____ 본 성 천 _____ 교회 수 일 학교 _____
---	--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있어서 피정이나 신앙 캠프가 학생들의 활동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본당에서 일정한 조직화가 기초를 이루어야 했다. 1970년대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에는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회장 앞으로 각 회원들이 논산 가톨릭 학생회에 입회한다는 ‘입회원’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매일미사 출석카드를 만들어 미사에 지참하도록 함으로써 성사 활동을 독려하

였다. 한편 본당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사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미사 경문과 성가가 간단한 삽화와 함께 등사물로 제작되었다. 다양한 연령과 수준에 맞추어 선교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지역 복음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3) 논산 중앙본당의 분리

1975년 논산본당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였다. 8월 27일 자 교구 사제 인사를 통해 읍내에 새 본당이 설립됨으로써 본당 사목구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²³⁰ 아울러 본당 주임이었던 김영곤 신부가 새 본당 주임으로 전임되고, 조치원본당에서 사목하던 유성숙 루도비코 신부가 논산본당의 새로운 주임이 되었다. 이로써 논산 읍내에 두 개의 본당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분할 직전 본당의 교세는 교구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교세통계에 따르면 1971년에 이미 5천 명을 상회하기 시작한 교우수가 1974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²³¹ 새 본당은 최초에 반월동 66번지 세정여관 건물의 2층을 전세금 200만 원에 얻어 사용하면서 1975년 10월 1일에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을 주보로 하고 ‘논산 중앙성당’으로 명명하였다. 두 본당의 명칭은 ‘논산/논산 중앙’으로 구분되었고, 가끔 ‘논산 제1본당/논산 제2본당’으로도 구분되었다. 이후 1982년이 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²³²

논산본당과 논산 중앙본당은 행정구역상 지명을 따라 논산 중앙본당은 대교동 본당으로, 모 본당인 논산본당은 부창동본당으로 개칭되었다. 본당의 관할 구역은 시내를 관통하는 호남선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모 본당이 북쪽은 신설 본당이 담당하였다. 분할된 논산본당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
분리 당시
논산본당
구역과 논산
중앙본당 구역

본당명	관할구역
논산본당(논산 제1본당)	부창동, 취암동, 등화동, 지산동, 강산동, 내동, 채운면 일부, 은진면 일부, 부적면, 연산면 일부
논산 중앙본당(논산 제2본당)	대교동, 화지동, 반월동, 덕지동, 광석면, 노성면, 성동면, 상월면, 석성면 비당리



새로 부임한 유성숙 신부는 1930년 9월 20일 공주 신평면 평소리, 사랑골로 잘 알려진 공소 교우촌 출신이다. 1957년 3월 19일에 명동성당에서 노기남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서품을 받았다. 서품 후 공군 군중 신부로 소임하고 나서 합덕, 홍성, 서산 본당과 조치원 주임을 거쳐 제12대 논산본당 주임이 되었다. 새 본당의 분리와 동시에 모 본당으로 부임한 유 신부는 본당의 안정을 꾀하는데 부

심하였다. 새 본당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논산본당은 신자수가 2,414명으로 여전히 교구 내 40개 본당 가운데 4번째로 큰 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 신부는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라는 표어 아래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한센 환우를 위한 자립 시설인 성광원이 본당 분리로 인해 신설 본당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본당에서는 노인 복지에 보다 집중하고, 제도적으로나 시설 면에서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7년부터 쉼썰양로원에 대한 복지시설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창동 66-2번지에 585평 규모의 양로원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

다양한 사도직 단체를 통해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역할을 강조해 온 대전교구는 1970년 8월 남성 제1차 ‘꾸르실료’를 개최한 바 있다. 논산에서는 1976년 1월 제 10차 남성 꾸르실료에서 유범준 베드로를 첫 꾸르실리스타로 배출하였다.²³³ 이로써 레지오마리아와 프란치스코 제3회에 이어 평신도가 중심의 조직적인 신심활동이 한국 교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 교회에 점차 확대되어 갔다.

4. 늘 새로운 교회

1) 부창동본당으로서 출발

1977년 10월 5일 유성숙 신부가 예산으로 전임되고, 제13대 주임으로 올리비

—
올리비에
(오일복) 신부



에 J.M.Ollivier(오일복 사도요한) 신부가 부임하였다. 올리비에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929년 1월 2일 프랑스 캄페르Quimper 교구에서 출생했다. 1953년 5월 31일 사제로 서품된 후 그해 10월 30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입국 후 예산과 공주본당의 보좌신부를 거쳐 서산, 규암, 성남동 본당주임을 역임하는 가운데 6·25전쟁 직후 가난한 한국 사회와 특히 충남지역에 그리스도교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의 대전교구에서 25년간 사제생활을 하면서 사자성어나 속담을 글과 강론에 자주 인용하는 등 우리말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리비에 신부가 부임한 이듬해인 1978년 5월 24일 본당에서 서품 25주년 은경축일을 기념하였다.²³⁴ 기념 상본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구원임’을 강조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과 ‘논산천주교회’라고 새겨져 있다.

올리비에 신부 재임기의 본당은 분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도시로 떠나는 신자도 많은 시기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부임 당시에 교우 총수가 2,500명을 넘었고, 이는 교구 내 45개 본당 가운데 6번째 규모였다. 수계자 역시 2,304명으로 교구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총 신자수 대비 수계율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²³⁵ 그가 재임하는 동안 교세는 꾸준히 2,500명을 상회하였다.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논산은 농촌지역으로서 본당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반에 육박하였고,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신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본당의 전출 인구를 보면 78년(271), 79(127), 80(140), 81(150), 82(150), 83(245)으로 나타난다. 잦은 인구 이동으로 전출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전교활동을 통해 입교자를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교구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천주교회 설정 2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교와 생활의 증거’를 중심으로 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²³⁶ 교서에서 전국 신자율 3%에 비해 2.4%로 열세인 교구의 신자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
상에 보내신것은 세상을 단죄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 3.17)

은 경 축 기 념

1978. 5. 24.

논 산 천 주 교 회
오 일 복 (요한) 신부

레지오마리아와 꾸르실료를 비롯해 교회의 신심 운동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교구장은 이보다 앞서 1978년 12월 9일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레지오마리아에 육성을 권고하는 서한을 제위 본당신부와 회장단에게 보낸 바 있다. 다양한 신심운동이 레지오마리아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교구의 방침에 부합하여 올리비에 신부는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 속에 레지오 활동을 장려하여 본당의 안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본당은 사회의 변화와 교구의 사목 방침에 따라 본당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소리 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사제성소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대한 교구의 큰 관심과 본당의 응답이 로마에서 결실을 맺었다. 본당 출신 유흥식 라자로가 로마에서 1979년 12월 8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유 신부는 논산군 채운면 우기리 출생으로, 대건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에 세례를 받았다. 1969년 신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마치고 군복무 후 로마로 유학을 떠났다. 교황청립 라테란 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제서품을 받은 것이다. 박노열 신부 이후 다섯 번째 본당 출신 사제였다. 뿐만 아니라 대건학교를 통해 신앙을 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가톨릭 학교의 중요성과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의미 있는 결실이라 하겠다.

1981년은 본당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안정적인 가운데 신자들의 신심활동으로 전교에 주력한 올리비에 신부는 우리말 속담과 전통에 밝았으므로 주갑이 되는 해를 기념했다. 10월에 열린 기념행사를 통해 분리 설립된 중앙본당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본당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혼돈 속의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역할에 충실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한국 천주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984년 한국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쇄신을 꿈꾸는 동시에 순교 복자 103위에 대한 시성운동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전 교구에서는 신앙의 요람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지와 교회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를 일찍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1976년 10월 20일에 ‘솔피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구상하여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한편, 전 교구민들이 성역화 사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²³⁷

이러한 상황에서 1982년 9월 17일, 교구 인사에 따라 올리비에 신부는 대흥동으로 전임되고 유재식 안셀모 신부가 부임하였다. 유재식 신부는 1936년 12월 10일 공주 사랑골에서 출생하였다. 12월 16일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된 후 논산본당으로 첫 발령을 받아 보좌신부로 소임 한 바 있다. 이후 연무, 온양, 선화동 주임을 거쳐 논산본당 제14대 주임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본당의 명칭이 ‘논산 부창동 천주교회’로 변경되었다. 1975년 새본당이 분리 신설된 이후로, 본당은 기존의 ‘논산본당’과 함께 ‘부창동본당’, ‘제1본당’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혼용되었다. 논산과 마찬가지로 공주와 천안 등 읍 소재지 내 제2본당이 분리되면서 혼란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당 명칭 부여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논산본당은 소재지 동명을 따라 ‘논산 부창동 천주교회’

로 명명하였고, 중앙본당은 ‘논산 대교동 천주교회’로 변경되었다.²³⁸

유 신부가 재임한 1982년에서 1986년까지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 역시 양적 팽창으로 크게 고무되던 시기였다. 내적으로는 1984년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점으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방한과 함께 한국 순교 복자 103위가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예비자의 증가와 신

—
유재식 신부



자 재교육 그리고 순교자 현양 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교구평협에서 개최한 평신도 세미나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 ‘교회 발전을 위한 평신도의 자세와 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세리 성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교구 단체장과 본당 회장단이 대상이었다. 38개 본당에서 62명의 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논산에서는 김석배와 김준태가 참석하였다.²³⁹ 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순교신앙의 열의를 이어받아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교구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였다.

교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본당에서는 평신도 스스로 본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월보를 발간하였다. 청년회 주관으로 월 1회 발행된 「루르드」는 1984년 3월 4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87년 3월 29일까지 발간되었다. 월중행사 계획 및 공지사항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였다. ‘루르드’의 발간 비용은 본당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본당 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신자들의 광고 협찬을 통해 충당하였다. 총회장 이갑래의 축사와 편집후기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루르드의 발간은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교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²⁴⁰

그간에 한국 선교 200주년을 기점으로 신앙 활동의 쇄신을 추구했던 한국 교회는 1984년 신앙대회를 개최하였고,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방한과 함께 103위 한국 순교자를 시성하면서 크게 고무되었다. 1983년 교구에서 신앙대회의 참가자를 파악

「루르드」
창간호



하는 가운데, 본당에서는 700명이 버스 10대와 기차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²⁴¹ 이후로도 본당에서는 교황 방문과 200주년 신앙대회에 대한 안내와 기도를 촉구하며 신앙의 쇄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84년 부활을 맞으면서, 발간한 「루르드」 공지사항에서는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당 내부에 도료를 새로 칠하면서 정결하게 아끼고 신앙심을 보이도록 노력하자는 권고 기사가 매우 흥미롭다.²⁴² 당시 본당이나 개인 생활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신앙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크고 작은 노력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새로운 도약

1986년 8월 28일 자로 논산 부창동본당 제15대 본당신부님에 박상래 야고보 신부가 부임하였다. 공세리성당에 안치된 순교자 박익서·의서·원서 집안 출신으로,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54년 성신대학에 입학하였다. 1961년 프랑스 유학을 떠나 1963년 12월 22일 리옹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독일의 본 대학과 프라이부르크 대학 그리고 다시 로마 성서대학에서 수학했다. 1970년 귀국하여 1971년에 가톨릭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16년간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에게 부창동성당은 본당신부로 첫 번째 소임지였다. 공의회 분위기가 한창이던 1960년대에 유럽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어서 교회의 신학을 전공한 박 신부는 공의회가 가르치는 바를 현장에서 섭렵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사제 양성의 선두에 선 인물이었다. 첫 본당으로서 부창동은 박 신부에게 이론으로 정립한 교회 쇄신이 실현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① 부창동본당 청년회

교회의 연대는 공의회가 추구하는 친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치였다. 교회의 연대와 친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가

—
박상래 신부



장 잘 드러난 곳은 본당 청년활동이었다. 박상래 신부의 부임 이후, 본당과 지역 교회의 청년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6년 9월 21일 가톨릭 공주지구 청년연합회가 창립되었다. 공주지구는 논산, 공주, 부여 등 3개 군의 5개 본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립총회를 본당 청년회가 주관하는 한편, 선거로 선출된 초대 회장에 부창동본당의 김상원 필립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²⁴³ 지구 청년연합회의 창립을 주관하고 초대 회장 역시 본당에서 배출한 것이다. 부창동본당 특유의 역동성과 선구적 신앙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청년활동의 이러한 역동성은 지구 내 다른 본당과 연대하는 가운데 확장되어 갔다. 「루르드」 28호에는 1986년 11월 2일 강경본당 청년회 창립 그리고 29호에는 홍산본당 청년회 창립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실리기도 하였다. 본당의 청년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과 지구 내 청년 신앙 활동을 선구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지구 청년 연합회의 결성으로 청년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이 필요하였다. 부창동본당이 실질적으로 연합회를 주도해 가는 상황에서 활동의 방향은 본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 신부는 청년들에게 공의회가 지향하는 사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1986년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박 신부는 청년회가 외적인 행사에만 치중하지 않고 혼인강좌, 피정, 연수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책임감을 고양시키

—
1986년
7월 13일
가나강좌
수료기념



기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²⁴⁴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혼인강좌를 본당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② 교육과 신앙 성장

교구에서 주관하는 교육장 교육,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성 피정, 본당 교우 1일 피정과 여성 단체 1일 피정 등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1987년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성서강좌’를 개설하였다. 박 신부는 로마에서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수학하였을 만큼 교의신학은 물론 성서에도 조취가 깊었다.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사상’을 시작으로 수준 높은 성서강좌를 열고, 교우들이 쉽게 성서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성서와 교리 지식을 성장시켰는가 하면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신부와 수녀가 신자들의 가정방문을 시도하였다. 1987년 9월부터 시작한 본당신부의 가정방문은 1989년 말까지도 계속되었다. 가정방문은 본당신부나 수도자가 신자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 신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소양을 처음으로 부여받은 소임지 부창동본당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을 차원 높게 고양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본당 주보 발간과 교육관의 신축

그동안 청년회가 발간한 월보 「루르드」는 본당에서 일종의 관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자들에게 교육과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지사항과 본당의 결정 사항도 「루르드」를 통해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박 신부는 매주 발간되는 「대전주보」의 후면을 이용하여 「부창동 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를 발행하였다. 이는 소식란을 통해 본당의 제반 행사와 활동 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²⁴⁵ 본당 사목의 성격상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한 단위로 하여 반복되므로, 월보보다 주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하려는 본당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주보를 통해서 헌금과 교무금 등의 본당 재정과 관련된 부분과 전례 담당자와 전례 시간을 매주 공지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보는 박 신부가 이임되기 전 마지막 주일인 1990년 2월 25일 자까지 152회가 발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주보를 통해 눈



에 띄게 드러나는 이슈들이 있다. 구 성당과 사제관 그리고 천지의 모후 성모동굴의 철거와 새 교육관 건립이다.

1987년 6월 28일 교육관 신축 기공식이 있었다. 교육관의 신축부지는 본래 구 사제관이 있던 자리이고, 강당과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던 구 성당은 철거하여 공터로 남겨두었다. 주보에는 교육관 건립을 위한 봉헌자 명단을 신립액과 납부액을 구분하여 매주 실었다. 1988년 3월 13일까지 봉헌된 금액은 63,043,000원이었다. 같은 주보에 2차 봉헌 신청자와 신청 금액을 적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1차까지 소귀의 금액을 추렴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관 건축 헌금은 1989년 5월 28일 자 주보에 마지막으로 공지되었다. 신청 총액 141,901,000원에 총액 137,686,000원이 걸렸다. 교육관의 축복식이 1988년이었으나, 건축 기금의 봉헌은 1989년까지 이루어졌다. 축복식은 1988년 12월 18일에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은 교육관, 사제관, 수녀원의 축복식과 함께 박 신부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동시에 기념하였다. 교중 미사 후에 본당에서 은경 축하식을 가진 뒤, 교육관으로 이동하여 축복식을 가졌다.

한편 1989년에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한국 교회는 초교구적으로 공동 사목 방향을 정하고, 1986년에는 ‘성체와 가정의 해’, 1987년 ‘성체와 교회의 해’ 그리고 1988년에는 ‘성체 안에 하나 되어’라는 표어를 각각 선포하였다.²⁴⁶ 그동안 본당에서는 가족 단위, 단체별 혹은 개별적

으로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하였다. 1988년 10월 9일에 논산 대건 고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한 ‘공주지구 성체대회’도 이러한 사목 방향에 따른 교구장 주교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 성체대회 기간에 1989년 10월 8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주례로 열린 미사에는 미리 신청을 완료한 본당 교우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3) 신앙생활의 다양화

① 이종대 신부 재임기

대전교구장 경갑룡 주교는 1990년 2월 20일 자로 사제 인사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에 이종대 요셉 신부가 제16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이종대 신부는 1941년 2월 8일 공주에서 출생했다. 1969년 12월 16일 사제로 서품되었고, 예산 보좌를 시작으로 교구 내 본당을 두루 거친 뒤 신탐에서 부창동성당으로 전임되었다. 이 신부 재임기 본당에는 신학교 건립이라는 교구의 숙원 사업의 성취와 포콜라레 신심의 심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신학교 설립은 1986년부터 교구장의 강한 사목적 의지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1989년 4월 3일 신학교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과 모금에 들어갔다. 1994년 11월 30일 현재 모금현황을 보면 72개 본당 가운데 부창동본당은 11번째로 배당 금액이 많았다. 3억 5천만 원의 배당액 가운데 3억 3천만 원을

—
이종대 신부



납입하였다. 신학교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1991년 8월 6일에 정재돈 바오로 부제가 사제로 서품되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거행된 서품식에는 성인과 학생 각각 2대씩 4대의 대형 버스를 이용하여 참석하였다. 유홍식 신부 이래로 12년 만의 사제 탄생이었다. 한편 1993년에 첫 신입생을 받은 대전가톨릭 대학교에는 부창동본당 출신 김수겸 프란치스코를 포함하여 23명의 신입생이 선발되었

다. 1991년에 서울 신학교로 입학한 신인수 안드레아까지 본당에는 2명의 신학생이 사제로서 수학과 있는 가운데, 성소 육성과 신학교 건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이종대 신부는 본당 교우들의 신앙 쇄신을 주요 사목적 과제로 삼았다. 기존의 레지오마리아와 울뜨레아 등의 신심 활동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가운데 다양한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전임 신부가 성서강좌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면 이 신부는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서읽기를 강조하였다. 매월 성서의 권 하나, 혹은 일정 분량을 제시해 주고 교우들이 함께 정해진 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본당은 포콜라레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포콜라레 피정인 ‘마리아 뿌리’에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본당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활말씀 나누기(젠모임)를 정기적으로 갖기도 하였다. 포콜라레 운동본부에서 매월 발행하는 「생활말씀」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도록 하는 한편 성경구절을 인용한 생활말씀을 매달 주보 상단에 기재하여, 외우고 묵상하도록 하였다.

1991년은 본당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10월 20일 쎄뽀학교 운동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침 9시 30분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식사는 구역별로 준비하게 하였고, 배구, 피구, 성경퀴즈와 레크레이션으로 본당 교우들의 친교에 중점을 두고 열린 행사였다.

② 윤종관 신부 재임기

대전교구는 1996년 1월 23일 자 교구장 공문을 통해 이종대 신부를 신학교로

—
윤종관 신부



발령하고 제17대 주임으로 윤종관 가브리엘 신부를 임명하였다. 2월 1일에 부임한 윤 신부는 부임 직후부터 성서읽기 운동을 장려하였다. 전례를 통해 매일 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성서를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권고했다. 다른 한편 신자 간의 상호 소통을 중요시했다. 이러한 사목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놀메두레」의 창간이다. 기존에 「부창동 천주교회 주

보:루르드의 성모」는 대전주보의 후면을 이용하여 간략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다. 본당에서는 A4용지 4면 분량으로 「놀메두레」를 발간하면서 이전의 주보가 가지고 있던 공지사항 전달의 기능을 수용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통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했다. 창간사에서 ‘일치의 끈’으로 규정한 이유였다. 창간호에 실린 대략적인 편집계획을 보자.

〈「놀메두레」 창간호의 향후 편집계획〉²⁴⁷

- 1면:그 주간 전례의 복음에 대한 해설 및 묵상. 미사 안내, 예비자교리 안내, 전례 봉사자 안내(금주 및 차주)
- 2면:성서공부를 위한 복음말씀 해설.
- 3면:교우들의 글 및 묵상을 위한 글. 교우들의 글은 사무실과 편집위원들을 통해 언제든지 접수를 받습니다. 좋은 체험담이나, 자신이 읽었던 좋은 글, 시 등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많이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면:본당 소식 및 교우들의 소식. 공지사항.

1면과 4면은 전례 안내와 공지사항 부분으로 기존의 주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사를 수록할 수 있는 면이 증가하였다.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시인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많은 내용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2면과 3면은 본당의 사목 방향에 맞추어 편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복음말씀의 해설과 교우들의 체험 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놀메두레」의 발간 비용은 2~4면 하단의 광고 후원을 통해 충당하였다. 성서를 통한 신앙의 쇄신과 교우들의 친교라는 두 가지 사목 방침이 실현되는 과정을 「놀메두레」가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신자들이 미사 때 편의상 가지고 다니는 ‘매일미사’에 의존하지 말고, 성서 말씀을 늘 가까이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본당의 성서읽기는 주보를 통한 정보의 제공에서 머물지 않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주부들을 위하여, 저녁에는 직장인과 청장년을 위한 ‘성서대학’을 열어 성서를 보다 깊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⁸

윤 신부는 부임 초부터 성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키워 가도록 사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본당 주보 ‘놀메두레’를 통해 성서의 이해를 돕는 자료와 해설을 제공

하는 한편 성서모임과 성서 특강, 전례 참여시에 성경을 지참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신자 개개인의 신앙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윤 신부는 본당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본당 예산 절감을 위해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였으며, 본당 체육대회, 대보름 민속놀이, 구역대항 노래자랑과 작은 음악회 등 본당의 각종 행사를 성대히 준비하여 본당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Ⅳ. 삼천년기 본당의 소명

1. 대회년과 논산지구의 설정

1) 지구 개편의 배경

한국 천주교회는 ‘2000년 대회년’을 맞으면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대회년 교서 「제삼천년기」에 따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을 대회년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²⁴⁹ 대전교구에서는 대회년을 기해 다시 한번 쇄신의 의지를 다졌다. 대회년 교서의 권고에 따라 1997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 1998년은 “성령과 선교” 그리고 1999년을 “하느님 아버지와 선교”로 연두 사목 표어로 정했다.²⁵⁰ 회년 준비 마지막 해인 1999년에 교구장 경 주교는 교구의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²⁵¹ 교구 내 지구와 지구장 임명방식의 총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대회년을 새롭게 맞으면서 교구의 쇄신을 꾀하려는 교구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충남 남부

—
김기 신부



지구의 경우 1998년 12월 27일 논산지구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듬해 1월 26일 자 사제인 사에서는 윤종관 신부가 대전 도마동본당으로 전임됐다. 부창동본당에는 윤인식 신부가 발령을 받고, 지구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인식 신부가 지병으로 부임을 할 수 없게 되자, 1월 30일 자 공문을 통해 김기 신부를 부창동본당 주임 겸 논산 지구장으로 새로 임명했다.²⁵² 이로써 김기 신부는 제18대 주

임신부가 되었다. 지구장 본당으로서 논산 부창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의 지구장은 지구 내 사제들이 선출하면 교구장이 인준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편제에서 교구장 주교는 지구장을 임명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새로 선포된 ‘지구장의 의무와 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³

〈지구장의 의무와 권리〉

1. 일반적인 책무

- 1) 지구의 공동사목 증진과 사제들의 친교 도모 및 교구장을 보필한다.
- 2) 해당 지구에서 교구장이 허락한 범위에서 교구장을 대리한다.
- 3) 지구장은 사제평의회와 참사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 4) 자문권을 갖고 교구장의 결정에 참여한다.

2. 지구내 사목과 사목구에 대한 책무

- 1) 지구내 사제들의 공동사목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조정한다.
- 2) 지구내 사제들의 직무와 생활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살핀다.
- 3) 지구 사제들의 연구와 피정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 4) 사목구에서 전례나 예식이 규정에 따라 거행되도록 보살핀다.
- 5) 사목구의 성당과 경당과 성지 및 성물의 보존 상태를 보살핀다.
- 6) 사목구의 성체와 유해 그리고 성유 보존 상태를 보살핀다.
- 7) 사목구의 재산과 건물, 문서 보존 상태를 보살핀다.
- 8) 교구장의 지구내 사목방문시 동행 순시하며 교구장의 지시가 있을 때 마다 사목구를 방문한다.

3. 교구장 대리로서의 책무

- 1) 교구장이 사제를 인사 이동시킬 때 자문한다.
- 2) 교구장이 본당 설립 및 폐쇄할 때 자문한다.
- 3) 교구장이 사목구의 교무금, 헌금, 기부금을 처리할 때 자문한다.
- 4) 교구장이 성직자의 급여를 규정할 때 자문한다.
- 5) 교구장이 성당이나 경당을 건축할 때 자문한다.
- 6) 교구장이 성당의 용도를 변경할 때 자문한다.

7) 교구장이 사목구에 부과금을 결정할 때 자문한다.

8) 교구장이 중대하고 이례적인 재정 행위를 할 때 자문한다.

4. 교구장 대리로서의 책무

1) 지구 사제의 2주 이내 외국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교구장이 사목구나 사제에 대하여 알아볼 사정이 있을 경우 지구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맡긴다. 특별한 경우에는 교구장이 달리 맡길 수 있다.

3) 지구내 사목구 관할 조정은 지구장 책임하에 하고 그 결과를 교구 사무처에 서면 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지구장에게는 교구장이 위임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교구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교구장을 자문하고, 일정하게 교구장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구장 본당으로서 부창동본당은 사목적, 교회법적으로 명실공히 지역교회의 중심 본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논산 지구장 본당, 부창동

첫 번째 논산 지구장이자 본당의 제18대 주임 김기 신부 부임 이듬해는 대희년이었고, 그해에 김 신부는 ‘놀메두레’ 상단에 표시한 사목 표어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당 안팎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부심하였다. 우선 사목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본당 내 각종 문서와 대장을 전산화하여 증명서 발급이나 통계 처리를 용이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사무 행정의 능률을 높였다. 한편 향상된 신자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성당은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본당의 시설들을 개선해갔다. 성당 내부의 조명시설을 시작으로 고백소의 설치, 성당·성가대·교육관 에어컨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 기도하고 싶은 성당으로 변모하게끔 하였다. 신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공용 주방의 개보수, 화장실 개선, 창고 신축, 보도블록 설치 등 본당 환경 개선을 통해

신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김 신부는 신자들의 복지와 신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신자들에게 기억되었다.

대희년을 신앙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는 한국 천주교회의 방침에 따라 본당에서 이에 부합하는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부활·성탄 시기에 성서쓰기, 매일미사 30분 전에 성서 함께 봉독하기 등 성서를 읽고 쓰기는 데 맞들이도록 권고하였다. 성서를 통한 신앙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성서 100주간 모임을 통하여 계층 간 그룹별로 단계적인 신자 영성 생활을 심화시키는 한편 특강을 통하여 성서를 가까이하도록 하고,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다.

사회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초창기 선교사 신부들의 지원에 의지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실천이 이 시기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과위원들로 하여금 본당 내의 독거노인과 재가 복지 대상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교 급식을 하지 못하는 근동의 초등학교 결식아동들에게 중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도 지급하였다. 재해 발생 시에는 피해 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구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교우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구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지구장 본당답게 본당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한편, 본당 출신인 유흥식 라자로 신부가 2003년 6월 24일 요한바오로 2세 교

—
2003년
8월 19일
유흥식 라자로
주교 서품식



황으로부터 대전교구 부주교로 임명되었다. 이어서 8월 19일 주교로 성성되었다. 본당과 교구 모두에 커다란 경사 가운데 하나였다. 유 주교는 2005년 4월 1일 제4대 대전교구장을 승계함으로써 최초로 본 교구 출신의 교구장이 되었다.

3) 내동 본당의 분리

1975년 이래로 두 개로 이루어졌던 논산 읍내의 본당은 내동 본당의 분리로 3개의 본당을 소유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8일 경갑룡 주교는 교구장 공문을 통해 본당 신설지를 예고했다.²⁵⁴ 부창동본당과 연무 본당 일부에서 ‘논산 제3본당’을 분리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창동 관할이던 취암5동, 내1, 2, 3, 4, 5, 6, 7동, 지산1, 2동과 3동 일부, 관촉동, 강산1동, 부적면 5개 리와 은진면 3개 리 등이 신설 본당 관할로 분리예고 되었다.²⁵⁵ 제3본당 신부의 정식 발령은 2004년 2월 3일 자 교구장 공문을 통해 발표되었으나, 모 본당이자 지구장 본당인 부창동에서는 그보다 먼저 준비 위원 구성과 임시 집회소 마련에 들어갔다. 본당 분리 준비 위원장으로는 이일범이 선출되었고, 위원으로 오세철 바오로, 박용서 분도, 신진수 스테파노, 강영배, 김원호 세자요한, 전은복 소피아, 문순덕 베로니카, 김영환 크레신시아가 봉사하였다. 집회소는 논산여상 입구, 대우쌍용차 영업소 건물 2층에 마련되었다. ‘논산 내동성당 임시 집회소

논산 내동성당



미사’는 1월 25일 저녁 7시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²⁵⁶ 아직 본당신부가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지구장 본당이자 모 본당으로서 새 본당의 시작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다.

내동의 분리와 동시에 부창동본당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부창동성당이 지구장이 머무는 본당에서 지구장과 본당으로 선포되었다. 준 본당인 대건학교와 15개 본당을 아우르는 지구장과 성당이 된 것이다. 같은 공문의 인사 발령을 통해 첫 지구장의 소임을 했던 김기 신부가 떠나고, 안상철 미카엘 신부가 새롭게 지구장좌의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2. 본당의 변화와 쇄신

1) 마리아홀의 건축

2004년 2월 12일, 제19대 주임으로 부임한 안상철 신부는 1950년생으로 1979년 3월 6일에 서품을 받았다. 부임한 지 약 2개월여 만인 4월 27일 안 신부는 서품 25주년 은경축 행사를 가졌다. 같은 해 6월 27일 자 후보에는 ‘다목적 회관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본당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목적 회관을 건축할 것 인지를 묻은 것으로 274명의 응답자 가운데 60%인 166명이 찬성하였다.²⁵⁷ 설문 이후 곧바로 다목적 회관의 신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부터 다목적 회관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다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1일 자 후보에 의하

—
안상철 신부



면 ‘회관 건립 기금’으로 1,175,400원이 처음 걷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된 2차 헌금은 안 신부의 재임기와 전임된 이후인 2009년 7월 12일 주일까지 이어졌고, 그해 8월에 건축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만 5년 동안 계속된 2차 헌금이였다. 2005년 7월 25일부터 개인 기부자도 보이며,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건축기금을 한창 모금 중이던 2004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을 기해 2차 헌금의 명칭이 다목적 회관에서 ‘마리아홀’로 정해졌다. 마리아홀의 건축을 위해 전 본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기금 마련을 위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기금 마련을 위한 신자들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홀 건립을 위한 모금위원회 구성

마리아홀 건립 모금을 위한 매 주일 2차 헌금과 전용 헌금 봉투 사용

민물 낚시대회와 같은 본당 행사의 이익금을 마리아홀 건립에 봉헌

10월 목주기도성월 한 달 동안 매 미사 전 목주기도 지향을 마리아홀 건립을 위하여 바침

1세대 1구좌 250만 원 봉헌하기

각 구역과 단체별로 마리아홀 건립을 위한 물품 판매

마리아홀 건립을 위한 9일기도

마리아홀은 2005년 4월 24일에 기공식을 갖고 7월 24일 상량식을 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완공하여 축복식을 가졌다. 교우들은 마리아홀 건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이룬 기도와 정성의 결실이었다.

2) 성당 리모델링

2009년 1월 22일 안상철 신부가 성환으로 이임되고, 제20대 주임으로 성병

—
성병렬 신부



렬 야고보 신부가 부임하였다. 성 신부는 1953년생으로 1982년 2월 25일에 사제품을 받았다. 본당에 부임한 이후 성 신부는 성당 보수와 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제관 수녀원 건물의 수리를 결정하였다. 마리아홀의 건립 대출금 상황이 막바지에 들어가던 2009년 8월 성 신부와 보좌였던 전원석 신부가 성전 보수금을 먼저 봉헌하고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마리아홀과 마찬가지로 우선 '성전

보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12월 20일 첫 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당은 2010년 8월 대수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하였다. 수리 기금은 자발적인 헌금과 함께 1구좌 250만 원의 특별봉헌을 받았고 2012년 대림절 직전까지 기금 마련을 위한 봉헌이 지속되었다. 성당 수리는 제단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단순화시켰다. 바닥은 타일로 교체하였고, 유리화를 창호공사와 함께 시행하였다. 성당의 외형은 그대로 둔 채 내부는 전반적으로 교체하되, 현대 성당의 보편적인 모양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인 1961년에 구 전례에

—
새단장한
성당 내부



맞도록 설계된 성당이 현대식 전례에 부합하도록 건축의 지향점이 변화되었다.

같은 시기에 박상래 신부 재임기에 신축한 사제관, 수녀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이루어졌다. 내부 교리실 벽을 철거하여 큰 홀을 마련하고, 서가를 배치한 후에 도서관을 구비하였다. 도서관을 설치한 것이다. 건물의 명칭도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도서관 역시 별도의 봉헌을 받아 공사비와 도서비를 충당하였다. 보수된 성당과 아름다운 도서관은 2010년 12월 29일 축복식을 갖고 기념 음악회로 경축하였다.

3) 신앙 활동의 쇄신

본당 성당과 아름다운 도서관의 보수 및 설치와 같은 외형적인 정비 외에도 신자들의 신앙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매 사순과 대림절뿐 아니라 수시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영성과 문화 그리고 예술 관련 특강이나 공연을 개최하였다. 차동엽 신부, 김진소 신부, 강길원 신부, 박진용 신부, 강수근 신부, 이동진 전대사, 바리톤 길경호, 김정환 신부, 맹상학 신부, 곽승룡 신부, 이상욱 신부, 김유정 신부, 윤종관 신부, 임기선 신부 등 신학, 교회사 등의 학술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예술과 같은 실천적인 영역의 전문가도 강사로 초대되어 신자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
2011년
11월 20일
본당설립
90주년
감사미사





도 본당에서는 2011년 11월 20일 본당 설립 90년 감사미사를 거행하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본당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이러한 분위기는 열성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부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2012년 1월 27일에 스테파노 장학회를 설립하고 4월 29일에 이사회를 가졌다. 양태훈 스테파노가 9억 원을 희사한 데 따른 장학사업이었다. 남

녀 가톨릭 학교를 설립했고, 학생 신앙교육의 선구적인 역할 해온 본당은 장학사업을 통해 그 정신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은 본당에서도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황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성병렬 신부가 안식년에 들어가고, 2013년 1월 17일 이원순 마티아 신부가 제21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은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년대회의 주 개최지가 대전교구였으므로 교황은 방한 중 상당 기간을 교구 내에 머물렀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는 교구민을 위해 마련된 교황의 집전 미사였다. 본당에서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6대의 버스에 나누어 새벽 4시에 성당을 출발하였다. 본당에서는 이미 교황 방문을 위한 9일기도를 8월 6일~14일까지 바쳤다. 연일 크게 보도되는 교황의 행보와 함께 교우들도 고무되어 가톨릭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3. 100주년과 새로운 도약 (2017~현재)

1) 교구 시노드와 본당

2017년 11월 24일 제22대 주임으로 곽명호 루카 신부가 부임하였다. 곽명호 신부는 1957년생으로 1991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본당신부로 사목한 것 외에도 교

구 성소국장과 사무처장 등 교구의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쳐 교회 운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부임 당시 교구에서는 시노드의 준비 단계에 있었고, 정식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시노드는 12월 8일 개막 미사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서 교구장 주교는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준비 단계를 통해 정리된 시노드의 의제를 공식 선포하였다. 담화문에는 ‘순교’, ‘사제’, ‘평신도’라는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²⁵⁸ 첫 번째 의제인 ‘순교’는 순교의 핏값 위에 세워진 대전교구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주제였다. 교계제도를 통해 교회를 이어온 가톨릭교회의 특성상 두 번째 주제인 ‘사제’의 쇄신은 가장 오래되고 다양하게 숙고된 의제였다. 시노드는 사제의 쇄신을 촉구하는 동시에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하였다. 제2차 바타킨 공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에 비추어봐서도 평신도의 역할이 교회 발전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노드는 제2차 바타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선구적으로 실천해 왔던 논산 지역교회와 부창동본당의 역할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노드 본 회기의 첫해이자 광명호 주임 신부의 부임 첫 번째 해인 2018년 본당의 사목 표어는 ‘말씀과 묵주기도’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성경필사와 묵주기도를 봉헌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1월 첫 주보 첫 번째 공지사항도 본당의 일치와 평신도들의 성화를 위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봉헌하자는 권고였다. 시노드와 교구설정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구 차원에서 시작한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본당이 걸어온 신앙 역사의 종합이기도 하

—
광명호 신부



였다. 본당 주보인 ‘루르드의 성모’라는 이름에 부합하도록 교구에서 가장 먼저 레지오마리아를 도입하고, 성모신심을 확산하고 깊이를 더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본당의 묵주기도 바치기 운동은 확고한 성모신심을 통해 지역의 복음 전파와 교구발전에 기여한 본당의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의회 이후 본당에서는 교리교육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평

신도의 역할을 자각하게 하고 지역 선교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교리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경에 대해 본당은 성경 읽기와 공부를 끊임없이 권고하였고 그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성경 필사는 성경 말씀을 숙독하고 묵상하는 방법으로, 전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순교’ 정신의 함양은 성지순례와 지구내 성지를 가꾸는 데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5월 1일 내포도보성지순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구내 성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삽티성지’를 순례하거나 성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본당과 지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8년 5월 29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축일에 삽티성지 행사에는 본당에서 신청을 받아 많은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교구 시노드는 2019년 4월 27일 폐막 미사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교구 시노드를 살며, 교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라는 교구의 사목 표어에도 드러나듯이, 시노드의 종료는 다른 한편 시노드에서 논의된 주제의 실천에 대한 요청으로 귀결되었다. 본당에서는 2019년의 사목 지표로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설정하였다. 시노드의 긍정적 결과를 본당에서 실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고 개인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다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인 1단체 가입, 평일미사 참례, 연도 참여, 교무금 신립과 같은 다섯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평일미사 참례와 연도는 신자들의 영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사의 생활화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가장 탁월한 신앙활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단체의 가입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동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본당의 실천적 의지가 표어에 담겼다고 하겠다.

2019년 11월 18일 ‘논산시 사람꽃 복지관’ 축복식 및 개관식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복지관은 부적면 외성리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논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공하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복지관이 본당과 지구 내에 있으므로, 일정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논산 지역에서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쉼썸 요양원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논산 본당의 구제 사업이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지역민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보도되는 현실에서 논산시와 지역의 여론이 새 복지시설을 천주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그간에 본당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노드와 본당의 지향대로 ‘교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공동체’이자,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본당과 지역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소명이 부창동본당에 여전히 주어졌다.

2) 본당 설립 100주년을 향하여

1921년에 설립된 본당은 2021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90주년을 준비하면서 본당 역사와 관련된 사료를 모으고, 자료 조사와 일정한 서술도 본당 교우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년사 편찬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당량의 자료가 모아졌고, 2019년부터는 내포교회사연구소와 함께 본격적인 주년사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역사 편찬과 아울러 외적인 준비도 필요했다. 본당에서는 교우들의 신앙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고민과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에는 ‘아름다운 도서관’을 북카페 형태로 전환하였다. 도서관은 도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가볍게 커피와 차를 마시거나 소모임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의 폭을 넓힌 것이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본당 정비에 돌입하였다. 사제관·아가페홀 지붕 보수, 성당 뒤 조경, 보도블록 배수로 정비, LED등 교체, 방범 카메라 교체, 성당 계단 및 핸드레일 보수, 마리아홀 주방 가스시설 보수 등 그동안 미루어왔던 노후시설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당의 위험 및 낙후 시설과 미관의 정비와 100년사를 위한 자료 정리 및 편찬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진행 중인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한 본당은 본격적으로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졌다. 2020년 본당의 사목 표어는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를 목표로 ‘100주년을 향하여’로 정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목계획 실현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신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불가하거나 신자들의 공동체 미사마저 전면 금지되기도 하였다. 교우

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톨릭 전례의 핵심인 성주강과 부활절 전례도 거행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모두가 당황하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주임신부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보내는 사목 서한을 주보를 통해 공지하였다. 꼭 신부는 사목 서한을 통해 성사를 배령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박해기 순교자와 공감하며, 미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하였다.

부활절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편지

† 찬미 예수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창동 교우님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큰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성당에 미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미사 중단을 거듭하고 있어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당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조용합니다. 그런데도 성모님 주변 화단에 튼リップ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온갖 봄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듯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아무도 보아주는 이가 없어도 꽃들은 늘 그 자리에서 그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미사가 중단되고 저는 줄곧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신자 없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자인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평일 미사도,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매우 특별한 것이었음을(…)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묵

숨처럼 소중히 지켜나가며, 한 번의 미사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했던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미사를 나는 과연 그토록 소중하게 미사를 봉헌했는지(…) “지금 봉헌하는 이 미사가 생애의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봉헌하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이 가슴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것처럼 미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금년 사순시기를 미사 없이, 영성체 없이 지냈습니다. 성찬에 초대되지 못한 사순시기였기에 어쩌면 가장 사순시기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런 영적 목마름으로 사순시기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활절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에 참으로 당혹스럽고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며 부활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모든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야 믿었다고 전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빈 무덤을 보았다면 분명히 믿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침담만 높이 세우면 사람들이 그곳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믿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빈 무덤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의 능력과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뉴욕은 가장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부러워했던 그 도시가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만들어진 바벨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안내로이 이겨내시고 하루빨리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라며 강복을 드립니다.

추신:부활절 미사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작은 부활선물로 대신하려 합니다. 부활초에 불을 켜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대전교구를 위하여, 우리 부창동성당을 위하여 목주의 기도를 바쳐 주십시오.

2020년 4월 12일 부활절에

곽명호 루카 신부 올림

코로나19 사태가 본당과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본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쇄신과 공동체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였다. 2021년에 맞이하게 되는 100주년의 기념사업 역시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보다 주력하였다. 말씀과 기도를 중요한 사목 방향으로 삼아왔던 본당은 100주년 기념 준비의 하나로 모든 교우들에게 ‘개인 성구 갖기’와 ‘목주기도 100만 단 바치기’를 제안하였다. 교우들 각자가 삶의 좌우명으로 삼을 성구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 내고, 적어 낸 성구를 성당 입구에 게시하였다. 한편 역사자료 수집 캠페인도 계속되었다. 10월 29일에는 ‘루르드의 성모 성당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보고회’를 마리아홀에서 개최하였다. 2021년 3월 30일에는 ‘부창동성당 100주년 기념비’를 성당 앞에 건립하였다.

지역과 교회사 안에서 논산 본당의 위상과 성당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를 되짚어

루르드의 성모
성당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보고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노력들
(개인 성구 갖기,
부창동성당
100주년 기념비)



보며, 본당 신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본당 설립 100주년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해 온 본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오늘의 현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또 하나의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